

'우리가 그린 벽화, 학교 명물 됐다'

'천사' · '큐피트의 화살' · '테트리스 게임' 등... 전주대 벽화동아리 '페인터' 제작 벽화 '눈길'

착시현상 인해 시민에 '인기'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재능 기부한 작품이 새 학기 캠퍼스의 새로운 명물로 등장했다. 전주대 학생회관 인근의 스타센터 1층 벽면에는 이달 들어 3m 크기의 흰색 날개가 새로 뻗었다. 학생이 가운데 서면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천사처럼 보이는 그림이다. 바로 옆에는 금방이라도 벽을 뚫고 튀어 나올듯한 오토바이 작품이 붙어 있다.



전주대학교 캠퍼스 내부에 있던 밋밋하기만 하던 계단이 추억의 테트리스 게임장으로 바뀌었다. 이 작품은 전주대학교 벽화동아리인 '페인터'가 만들었다.

도서관 앞에는 사랑 고백장소로 안성맞춤인 큐피트의 화살과 장미꽃을 선물하는 고백존 그림도 들어섰다. 이들 그림은 입체감을 느끼게 하는 3D화면과 진짜같은 착시현상으로 눈길을 모으는 트리아트로 전주대 '페인터'가 만든 작품이다. 페인터는 디자인학부 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된 전주시지역의 유일의 대학생 벽화동아리이다. 외부 재능기부 활동에도 열성적인 페인터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손잡고 남부시장 등 재래시장의 주차장을 벽화로 단장해 왔다. 또 정읍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는 물론 전주 반월초등학교에는 담장에 어린이 놀이터 그림도 선사한 바 있다. 이들 학생들은 유난히 길고 뜨거운

던 7~8월 하루 5~6시간씩 땀방과 싸우며 벽화를 그렸다. 수은주가 35~6도까지 치솟아 폭염 경보까지 내린 상황에서도 긴 바지에 앞치마, 모자에 수건까지 걸치고 붓과 롤러를 들고 채색작업을 했다. 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린 결과 밋밋하기만 하던 계단은 슈퍼스타의 탄생을 의미하는 레드카펫이 생겨나고 광

찍한 사람 고백 코너와, 추억의 테트리스 게임장으로 바뀌었다. 이들 작품은 학생은 물론, 시민들까지 불리는 명물이 되고 있다. 연인이나 아이 손을 잡은 부모들이 찾아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다. 학생 전진영(국어교육과 2년)씨는 "트리아트 벽화 덕분에 캠퍼스가 한층

즐거워 분위기로 변했다"며 "친구들이 서로 먼저 사진을 찍었다며 경쟁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동아리 회장 송선주(3학년)씨는 "점통 속에서 20~30분 작업 하고 나면 아찔한 현기증을 느낄만큼 힘들지만, 동료 학생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원광대, 무료 3D프린팅 초급반 교육 시행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3D프린팅 교육을 통한 지역 기업체 재직자 역량 강화를 나선다. 원광대 LINC사업단은 오는 24일부터 공과대학 LINC 3D프린팅실 및 CAD실에서 도내 산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3D프린팅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초급반 교육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3D프린팅 이론 및 출력실습'으로 이루어진 교육은 3D프린팅과 관련된 다양한 자격을 보유한 산학협력중점 교원 직강으로 진행되며, 특히 상반기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매우 좋음'이 되었다가 88.9%로 높게 나온

에 따라 이번 교육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광대 LINC사업단 관계자는 "교육이 진행되는 LINC-3D프린팅실은 바로 옆 LINC-CAD실과 이어져 있어 신속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교육용 3D프린터뿐만 아니라 고급 3D프린터도 구비돼 있어 3D프린팅이 필요한 기업체에 유익한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은 9월부터 11월까지 4~6회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고민형 기자

전북대학교, QS 세계대학평가 '국립대 2위' 차지

세계 4322개 대학 대상 학계 · 기업계평판 · 교원당 학생 · 외국인 교원비율 등 종합적 평가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6일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16 세계대학 평가'에서 국립대 2위, 국내 종합대학 중에서는 14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전북대는 최근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 국립대 2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세계 4,32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평판(40%)과 기업계평판(10%), 교원당 학생비율(20%), 외국인 교원비율(10%), 외국인 학생비율(5%)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학계평판이 국내 14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교

수당 학생 비율, 교수당 논문 피인용수, 외국인 교원 비율 등에서 국내 10위권에 랭크되며 좋은 순위를 유지했다. 특히 전북대는 지난 6월 발표된 영국 TIMES사 평가와 앞서 발표된 2016 QS 아시아대학평가 등에서 부산대에 이어 국립대 2위를 차지하는 등 올해 꾸준히 국립대 중 두 번째에 이름을 올리며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학계 평가나 교수당 논문 피인용수 등 연구의 질적 수준이 순위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보여 전북대 교수진들의 높은 연구 경쟁력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

음을 반증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간 전북대는 교수들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적 인센티브 지원 및 승진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스템 손질했고 ACE 사업을 통해 국내 유일하게 신입생 4학기제 등 전북대만의 학부교육 모델을 구축하며 교육의 질도 크게 높이고 있다. 또한 실력과 모험심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생활관에 생활하며 인성과 포용력 등을 배울 수 있는 레지덴셜칼리지(RC)와 졸업까지 최소한 학기 이상은 타 지역이나 국가에서 언어와 문화를 함께 체득하는 오프캠퍼스(OC) 제도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세계 최초로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지미카터 국제학부' 설립과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와 4년 내 학·석사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 대학의 캠퍼스 유치도 추진하는 등 차별화 된 국제화 브랜드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남호 총장은 "우리 전북대가 최근 각종 평가에서 국립대 2위, 국내 대학 10위권의 위상을 굳건히 하며 전북 지역의 자람이 되고 있다"며 "외부 평가뿐 아니라 대학의 내실도 더욱 다져 우리 전북대만의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대, 나가가사기대학 학생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호응'

전북대학교 CK-1 차세대 에너지융합 특성화 사업단(단장 안병국)이 일본 나가사키대학교와 학생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에너지 융합 분야 실용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학생들을 해외 우수 연구실에 보내 현지 학생들과 함께 실험·실습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사업단은 최근까지 학생 22명을 나가사키대학교로 파견해 이 대학 우수 연구실에서 재료조직 물성학과 고분자 재료화 등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학점까지 인정받았다. 또한 여름 방학 기간 중 나가사키

대학에서도 9명의 학생이 전북대를 방문해 2주 동안 에너지 융합 실험 교육을 수행해 양 대학이 모두 윈-윈 하는 프로젝트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연구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전북대의 연구 분위기, 기자재 장비 시설 활용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반도체물성연구센터 투어와 튜터-튜터 1:1 매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안병국 차세대 에너지융합 특성화 사업단장은 "교류 대학과의 인턴십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융합 분야에 특화된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 우수 대학들과 MOU 등을 통해 해외 글로벌 인턴십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라북도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